

한중경제포럼

제11-07호 2011년 11월 17일

2011년 중국경제 분석과 2012년 전망

2011년 제7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2011년 중국경제 동향과 2012년 전망
2. 일 시 : 2011. 9. 27 (목) 16:00~18:00
3. 발표자 : 국가경제신식중심 경제예측부 판젠핑(范建平)

1. 2011년~2012년 중국경제 동향과 예측

- 2011년 국내경제는 경제성장 속도가 동기대비 하락하고 물가는 동기대비 상승하였으며, 국제 경제는 신흥경제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된 동시에 선진국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복잡한 국면이 형성되었음.
- 중국은 경제운영의 주요모순을 파악하여 물가안정을 거시조정의 주요목표로 하고, 경기부양책을 통한 경제성장에서 자체 성장으로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의 경제는 거시조정의 예상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물가상승 추세가 기본적으로 억제되고 거시조정의 우선임무가 효과를 거둠.
- 통화통제, 생산발전, 공급보장, 유통 활성화, 감독강화, 민생안정의 요구에 따라 중국은 일련의

대응조치를 실시하였음.

- 2010년 4/4분기 이후 9차례에 걸쳐 기준율을 총 4.5%p의 인상 조정하고, 5차례에 걸쳐 대출 기준금리를 총 1.25%p 인상한 결과, 8월말 M2는 동기대비 13.5% 증가하여 지난해 동기대비 5.7%p 낮은 수준을 보여 16%의 목표구간에 있었음.
 - 식량, 식용유, 설탕, 고기, 채소와 제품유 등 주요상품의 시장공급이 확보됨.
 - 7월 CPI(주민소비가격지수)는 동기대비 6.5% 상승하여 이번 물가상승 주기의 최고점에 이르렀음. 8월 CPI는 동기대비 6.2% 상승하여 동기대비 상승률은 7월에 비해 0.3%p 하락하였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7월에 비해 0.2%p 하락하였음.
 - PMI 동기대비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전월대비 상승률은 1월의 0.9%에서 8월의 0.1%로 하락하였음.
- 2000년대 이후 식품가격 상승을 위주로 한 2차례의 가격상승 주기의 경험에서 보면, 2011년 7월과 3/4분기는 이번 물가상승 주기의 월별 최고치와 분기별 최고치를 기록하고, 4/4분기부터 중국의 물가는 안정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큼.
- 2011년의 CPI는 동기대비 5.5% 상승하고 PMI는 동기대비 6.5% 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물가상승 수준이 연초 예측목표치를 훨씬 초월하였지만 여전히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음.
- 국제금융의 불안정은 국내 가격조정에 장단점이 있음.
- 장점: 최근의 금융 불안정에서 국제유가 등 주요상품 가격은 모두 10-20%의 하락폭을 보였고, 세계경제 성장둔화 전망에 따른 국제 주요상품 가격의 하락이 중국의 수입성 인플레이션 통제에 유리함.
 - 단점: 선진국은 통화유동성을 더욱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음 단계의 인플레이션기대를 향상시키고 중국의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임. 선진국의 투자자는 자국의 금융상황

이 우려되어 신흥경제 국가들로 자금을 이전시킬 것임. 2011년 3월 중국의 신규 증가된 외환잔금은 4,079억 위안에 달하여 2011년(8월 기준) 월별 외환잔금 증가의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국제 금융위기가 전면적으로 발생한 후 자금유입이 현저하게 완화되고 외환잔금의 월별 증가율이 하락하였지만 중국경제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신규 증가한 외환잔금의 월별 증가규모도 상승하기 시작하였음. 8월의 월별 증가율은 2011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8월 신규 증가한 외환잔금은 3,700억 위안을 넘어 7월에 비해 70% 증가하였음. 8월 말까지 중국의 외환잔액 총액은 25조 2,645.6억 위안에 달하였음.

□ 2012년 물가 상승폭 둔화는 크지 않을 것이며, CPI 상승률은 4% 내외가 될 것임.

- 2000년대에 들어서 중국은 각각 2003-2004년, 2007-2008년에 총 2차례의 비교적 현저한 가격상승을 겪게 되었고 CPI상승 주기는 각각 27개월과 24개월이었음.
- 2011년 7월까지 이번 CPI 지수의 동기대비 상승은 이미 25개월 동안 지속되었는데, 주기적인 파동규칙에서 보면 가격상승은 이미 전환점에 근접하였고 상승폭도 하락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지만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임.
- 2012년의 CPI상승률은 4% 내외로 예상됨.

□ 경제성장이 안정적으로 감속하고 일부 경기부양책 퇴출의 강도는 적절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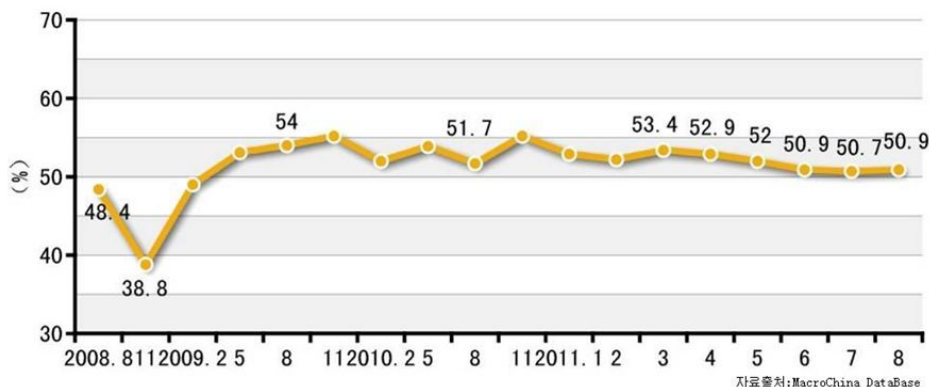
- 2011년 거시조정의 또 하나의 핵심은 물가상승률의 하락을 실현하는 동시에 경제성장률의 큰 파동을 방지하는 것임.
- 2011년 통화정책, 부동산정책과 자동차 보조금 정책의 변화로 사회 총수요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계경제 회복이 기대보다 크게 더딘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부양책 퇴출 강도가 지나칠 경우 큰 폭의 경제성장률 파동이 있을 수 있음.
- 안정된 통화정책의 추세를 유지하고, 적절한 부동산 정책을 견지하여 전반적으로 거시조정의 강약이 적절하였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감속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음. 1/4분기와 2/4분기 GDP는

동기대비 각각 9.7%와 9.5% 상승하였고 하반기에 동기대비 9.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2011년의 GDP 성장률은 9%의 잠재 성장수준에 근접한 9.4%로 전망됨.

□ 공업생산이 안정적으로 감속하였으며, 2011년 공업 부가가치 성장률은 13.8%로 예상함.

- 경기부양책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공업생산은 2010년 3/4분기부터 2011년 2/4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여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동기대비 각각 13.55, 13.3%, 14.4%, 13.9% 성장하고 4개 분기 연속 14%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하였음. 2011년 전체 동기대비 성장률은 13.8%로 예상됨.
- 공업성장의 속도와 효율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이며, 1-7월 전국 규모이상 기업은 동기 대비 28.3% 증가한 2조 8,004억 위안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그림 1> 중국 제조업 PMI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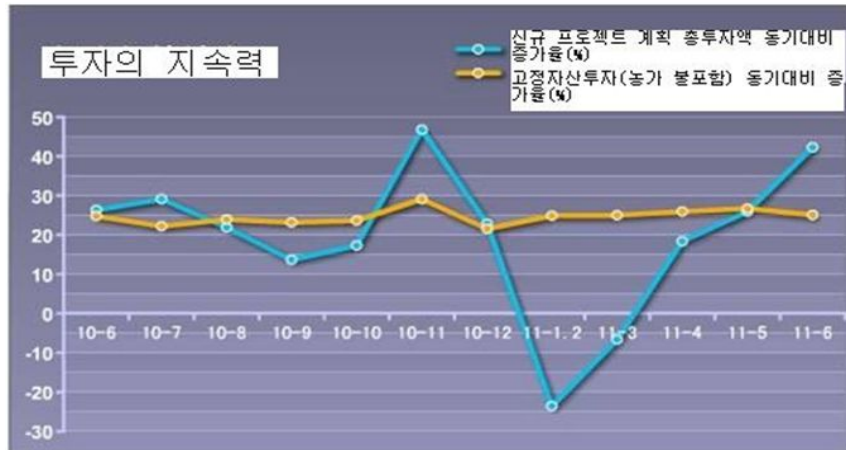


□ 중국의 투자증가속도는 여전히 빠른 편임. 2011년과 2012년의 고정자산 투자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각각 24.8%와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1-8월, 고정자산투자(농가 불포함)는 동기대비 25% 증가한 18조 608억 위안에 달하여 그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음.
- 전국 부동산개발 투자는 동기대비 33.2% 증가한 3조 7,781억 위안에 달하였고 이중 주택투자가 2조 7,118억 위안(동기대비 36.4% 증가)으로 동기대비 증가율이 지난해 동기대비 3%p 내외 하락

함.

<그림 2> 중국의 투자 변화 추이



- 1-8월 전국 신규 프로젝트 계획 총투자자는 동기대비 23.1% 증가하여 1-6월의 14.9% 대비 큰 폭으로 반등함.
- 고정자산투자의 실현금액 증가율은 1/4분기의 19.2%에서 1-8월의 23.3%로 가속화됨.
- 신규 프로젝트 계획 총투자자와 투자 실현금액이 전반기의 낮은 수준에서 후반기의 높은 수준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1년과 2012년의 고정자산 투자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각각 24.8%와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성장 추진에 유리한 요인: 투자

- "12.5"규획의 두 번째 해인 2012년 투자 프로젝트가 집중 건설단계에 들어서기 때문에 일정 정도 투자와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됨.
- "6.5"-11.5"기간의 경험에서 보면, 5개년 규획의 연도별 평균 투자증가율은 각각 17.3%, 24.1%, 28.5%, 18.8%, 19.8%로 투자건설 주기의 영향을 받고 5개년 규획의 두 번째 해에 건설 프로젝트가 투자 최고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은 "12.5"계획의 두 번째 해로써 중대 계획 프로젝트 건설의 견인 하에서 중국 경제는 여전히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의 경제성장률은 9% 내외로 예상됨.

- 중국의 투자율과 투자결정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됨. 현 단계 중국 경제주기는 투자주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고정자산투자의 안정적인 증가와 구조개선은 경제운영의 속도와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2012년 중국의 GDP는 동기대비 8.7%(수정 가능한 1차 예상치)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경제의 적절한 하락은 물가하락에도 유리함.
- IMF의 예측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중국의 GDP성장률은 각각 9.5%와 9%로 나타남.

□ 세계경제의 저속성장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임.

- 8월 신규 주문오더지수는 51.1%로 7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이중 신규 수출 오더지수는 48.3%로 7월에 비해 2.1%p 하락함. 신규 수출 주문오더의 대폭 하락은 향후 해외수요의 악화로 인해 수출증가가 더욱 큰 도전에 직면함을 예시함.
- 1-8월, 수출은 1조 2,226.3억 달러(23.6% 증가)에 달하였고 이중 일반무역 수출이 5,926.7억 달러(30.5% 증가)로, 이 기간 전체 수출증가율 대비 6.9%p 높은 수준을 보였음.
-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은 선진국에 대한 수출보다 현저하게 빨리 증가되고 미국, 일본, 유럽시장이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의 55%에서 2010년의 43.5%, 2011년의 42%로 하락하여 선진국 시장에 대한 의존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해외수요의 감소가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2008년보다 작음. 2011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20% 내외, 2012년 수출 증가율은 10% 내외로 예상함.

- 2007년 중국 GDP 대비 순수출의 비중은 8.9%였지만, 수년간의 조정을 거쳐 현재 이미 2.5%로 하락하였음.
- 또한 당시 가공무역 수출이 55%를 차지하였지만 현재 45% 내외로 감소되었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일반무역이 중국 기존 수출의 주요 증가분임.
- 2011년 상반기와 전년(全年)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각각 24%와 20% 내외(하반기 증가율은 15%)이고 수입증가율은 각각 27.6%와 24% 내외(하반기 증가율은 20%)일 것으로 예상됨. 2011년 누적 무역흑자 규모는 1,600억 달러(동기대비 13% 내외 하락)로 예상됨.
- 2012년 중국 수출은 10% 내외의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고 2009년 당시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 중국 거시조정정책의 새로운 선택

- 2012년 국내외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아 중국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이 모두 소폭으로 하락할 것임.
 - 수정 가능한 예측에 따르면, 기준 시나리오 GDP 성장률과 CPI 상승률은 각각 8.7%와 4% 내외이고 고용형세가 계속하여 호전되며, 국제수지가 균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운영 모순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구조적인 모순이 더욱 두드러지고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에 계속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경제구조 조정을 거시조정의 최우선 목표로 하며, 도농주민소비, 전략적 신흥 산업과 서비스업, 에너지절약과 배출감소, 과학기술 혁신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개혁심화를 통해 자체 성장 활력을 불어 넣어 중국 경기부양책의 퇴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함.

□ 국내요인은 중국정책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임.

- 현재 거시조정정책은 국내외 형세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함. 국내요인은 중국정책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며, 이점은 2008년의 상황과 다른 점임. 즉, 자국 국정에 따라 거시정책을 결정하고 선진국의 채무위기와 경제 감축에 대해 지나친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됨.
- 정책적 부양에서 자체성장으로의 질서 있는 전환은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추세이고 지나친 물가상승 억제는 중국 경제운영의 주요모순임.

□ 우선 착실하게 안정적인 통화정책 실시해야 할 것임.

- 안정적인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향상시키고 부외사업(off-balance sheet business)을 통화정책 조정범위에 포함시킴. 최근 몇 개월 통화 신용대출의 증가속도는 다소 하락하였지만, 사회용자 총량 증가속도가 빨라, 상업은행의 신용금 보증금 예금, 보증서 보증금 예금, 은행 어음 보증금 예금 등 3가지 종류의 보증금 예금을 예금 준비금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임.
- 대출구조를 고도화하고 금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구조조정 특히 농업, 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을 강화함. 소기업 대출증가속도가 전체 대출의 평균 증가속도보다 낮지 않도록 하며 농업 관련 대출증가량이 전년 대비 낮지 않도록 함.

□ 통화정책의 타임래그와 누적효과를 충분히 중시하고 정책의 전망성을 향상시켜야 함.

- 현재 국내외 경제형세가 복잡하고 거시정책 효과는 타임래그 특징이 있으며, 원료가격 상승, 노동비용 상승, 전력공급 부족 가능성, 금리 인상, 환율 절상 등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부담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기존의 경제운영 상황을 잘 살피고 향후 경제성장 추세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정책의 전망성을 향상시켜 통화정책의 타임래그 및 여러 요인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합리하게 활용해야 함.

- 금리시장화, 환율 변동 메커니즘 등 금융개혁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외환보유량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며, 외환보유 증가량을 점차 축소시키고 해외자본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핫머니의 대량 유입을 방지함.
- 또한 은행 자본 충족률, 은행 시스템 위험 방지, 자본시장 안정 사이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하고 시장의 기대를 합리적으로 유도하며 시장 확신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

□ 재정정책의 중점은 지방채무 규범화임.

-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고 재정부출을 절약하고 지출구조를 고도화함. 2011년 3-5월, 심계서(審計署)는 전국 지방정부의 채무현황에 대해 전면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전국 인민대회에 보고하였음.
- 심계서의 발표 결과 2010년 말, 지방정부 채무 잔액은 10조 7,200억 위안임. 이중 51.15%(5조 4,800억 위안)는 2008년 및 그 이전에 빌린 것이고, 2008년 이전에 시작되어 건설 중인 프로젝트에 사용되었음.
- 또한 지방채무의 증가는 주로 지방 경제사회의 발전에 사용되고 2차례 금융위기 대응 시 일정 정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음.
- 그러나 매우 주목해야 할 점은 지방정부의 채무 차입과 관리 등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임. 지방정부의 융자 플랫폼 회사에 대한 정리, 규범을 가속화하고 통일된 감독 관리를 실시하여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함.
- 분류관리, 차별화 대우 원칙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고, 건축 중인 프로젝트의 후속 융자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함. 금융기관은 위험 식별과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상업화 원칙을 지키며, 채무자의 재무능력과 상환원천을 신중하게 평가하며, 규정을 위반한 정부의 담보 제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함. 관련 부서와 지방정부 및 금융기관은 연구를 가속화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 확고하게 부동산시장 조정정책을 추진해야 함.

- 단기 및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의 잠재압력은 여전히 크고 대다수 도시의 부동산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부동산 판매자와 구입자는 여전히 관망과 게임(博奔)단계에 있고 시장은 대치 교착 상태에 있어 조정의 전면적인 효과는 아직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함.
- 현재 부동산시장 조정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조정결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정책방향에 변화가 생기거나 강도를 완화해서도 안 됨. 각급 정부는 중앙의 부동산 조정정책을 그대로 추진해야 함.
- 불합리적인 수요를 확고하게 억제하고 계속하여 차별화된 주택대출, 조세정책, 구입제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며, 2선과 3선 도시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여 부동산가격의 합리적인 안정을 유도해야 함.
- 부동산 용지 공급을 적절히 증가시켜 현재와 향후 일정 기간 주택의 유효한 공급을 확대하고 보장성 주택과 일반 상품주택의 건설을 중점적으로 강화함.
- 부동산 조정정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거나 부동산가격 상승이 급격하고 보장성 주택건설이 낙후한 도시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며 지정 기일 내에 개정하도록 해야 함.
- 현재 부동산시장의 대치 기간인 만큼 이 시기를 이용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 제정해야 함.

□ 안정적인 수출 증가와 적극적인 수입 확대를 추진함.

- 대외무역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중소기업 자금압박 등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

하며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증가와 기본적인 균형을 촉진함.

- 해외시장 환경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중국 수출입무역에 대한 영향을 착실하게 연구 판단하여 관련 대응조치를 취해야 함.
- 대외무역의 장기적인 발전 동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과 대기업 실력 강화를 유도하고, 전통적인 우위제품의 수출 안정과 첨단과학기술·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유도하며, 전통시장을 공고히 하고 신흥시장을 개척해야 함. 또한 일반무역 발전의 안정과 가공무역 발전의 가속화하고, 수입과 수출을 동시에 중요시하고 대외무역의 증가속도, 질, 효율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함.
- 해외수요를 안정시키는 각종 정책조치를 마련하고 수출환급정책의 안정을 유지하며 수출신용보험 보급률을 확대하고 대형 유닛 설비의 수출용자를 지원함.
- 무역용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중소 대외무역기업의 융자담보 전문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입 신용대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질의·응답>

질문 1.

최근 몇 년간 지방 중소기업의 융자난이 문제시 되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워 민간 사채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중국정부는 중소기업의 융자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는가? 2008년부터 해외 핫머니가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중국정부는 이런 핫머니 유입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있는가?

답변 1.

중소기업의 융자난에 대해 정부에서는 통화정책 제정 시 통화유동성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였음.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금융

기관의 대출을 증가하였음.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해 금리 인상 조정 이외에 은행의 영업세 감면 등 재정수단에 따른 은행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통해 대형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하였음.

금리가 높지만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민간금융 활동을 정책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되고, 점차 정규화 되도록 유도해야 함. 즉 지하은행이 소액 대출기관 등 합리적이고 정규적인 소형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함. 실물경제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투기로 활용되는 불법 자금유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해야 함. 이런 금융활동은 중국의 금융시스템에 큰 위험을 가져다줄 것임.

현재 일부 투기자들이 민간 사채를 활용해 제조업 등 실물경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 알 루미늄, 동 등에 대량 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허위금융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함.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려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향후 중국이 직면해야 할 문제점임. 현재 핫머니의 유입과 유출은 위안화 국제화 과정에서 위안화의 자유로운 교환을 실현하기 전에 중국의 일종 시험과 연습으로 간주할 수 있음. 만약 위안화가 한국의 원화처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을 경우 핫머니가 더욱 큰 규모로 더욱 빈번하게 유입될 수 있기에 일방적으로 핫머니의 유입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어떠한 수단으로도 핫머니의 유입을 억제할 수가 없거나 와 향후 위안화 국제화를 실현하려면 위안화의 자유로운 교환이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핫머니의 유입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음.

현재 핫머니의 유입에 대해서는 중국인민은행에서 대량의 은행어음을 발행하고 은행의 지준율을 인상 조정하는 두 가지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핫머니 유입에 따른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음. 하지만 향후 은행에서 직접 지준율을 인상 조정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판단됨. 대신 과거 지준율 범위에 속하지 않았던 부외사업을 점차 지준율 예금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최근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신용증 보증금 예금, 보증서 보증금 예금, 은행 어음 보증금 등 3가지 종류의 보증금 예금을 예금 준비금 범위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3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인상시킨 것과 같음.

이 외에 중앙은행은 부외사업에 대한 금융혁신을 추진하고 지준율 범위를 점차 확대시키는 것이 지준율 인상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런 전통적인 방법 이외 홍콩, 런던 등 위안화 해외시장에서 더욱 많은 위안화 채권 발행 등 새로운 방법을 통해 위안화를 흡수하고 위안화의 합리적인 투자공간을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음.

질문 2.

2012년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적고 계속하여 내수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과연 어떤 정책을 통해 내수를 확대할 계획인가?

답변 2.

내수는 투자수요와 소비수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함. 투자수요에 있어서는 더 이상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통해 자극할 필요가 없고 "12.5"계획의 프로젝트로만으로도 충분하고 내수안정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함. 물론 투자는 자금과 중요한 관계가 있기에 2012년의 통화정책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통화정책보다 더 긴축되거나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투자에 유리하다고 생각함. 즉 중국은 긴축되거나 완화된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함.

소비확대에 있어 현재 중국의 정책은 그 강도가 아직도 미약하다고 할 수 있음. 2011년 중국의 소비가 큰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음. 특히 자동차 소비량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중국의 사회소비 총액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음. 2012년에 중국은 소비확대를 핵심으로 하여 주로 아래와 같은 3가지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우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함. 과거 중국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주민소득에서 주택소비가 지나친 비중을 차지하였음. 즉 서민은 주택 구입 후 다른 제품을 소비할 능력이 없었음. 따라서 부동산 가격 조정 관련 정책을 완화해서는 안 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소비확대에도 유리함.

둘째, 서민의 소득을 향상시켜야 함. 개인소득세 징수기준 인상 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건비 상승 메커니즘을 완비할 필요성이 있음. 2011년 재정소득은 30% 이상 증가하였지만 도시주민소

득의 명목상승률은 10%이고 가격요소를 제외한 실제증가율은 7%에 불과하였음. 따라서 전 사회적으로 정부에 대한 감세요구가 점점 강렬해지고 있음. 정부에서도 서민의 요구를 감안하여 적절히 감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셋째, 민생부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입을 증가해야 함. 보장성주택 건설, 의료, 양로 등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이 사회보장 걱정 없이 소비하도록 해야 함.

질문 3.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의 중국경제 형세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이번 유럽위기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중국의 PMI지수는 45%대까지 하락하고 중국정부에서도 통화유동성을 적극 확대시킨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였음. 최근의 PMI지수는 49.4%까지 하락하여 50%대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음.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중국정부가 기존의 빠른 경제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려면 통화든 재정이든 일정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하지만 발표자께서는 기존 중국경제가 외부로부터 받은 충격은 아주 제한적인 것이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2012년의 경제성장률은 8% 내외일 것으로 판단하셨는데, 이런 판단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함. 즉 해외경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 것은 아닌가? 이 외에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약 25% 정도가 부실채무이고 상환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정부는 이런 지방채무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답변 3.

2012년의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3가지 예측이 있음. 기준 시나리오일 경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8.7%와 4% 내외이고, 가장 비관적인 전망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각각 8%와 3% 내외이며,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각각 9.5%와 5% 내외임. 이런 3가지 예측에 대응되는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보면, 기준 시나리오일 경우 2011년과 2012년의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4%와 4%로 2012년에 2011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가장 비관적인 전망은 2011년과 2012년의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4%와 3%이며, 낙관적인 전망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4%와 4.7%임.

중국과 유럽은 금융차원에서의 연계가 중국과 미국처럼 밀접하지 않음. 예컨대 중국은 대량의 미국국채를 소지하고 있지만 유럽국채는 아주 소량 소지하지 않음. 따라서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금융위기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음.

중국은 2009년과 2010년에 국제금융위기에 대해 지나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의 통화 공급량이 급격히 상승하여 2009년의 M2 증가율은 27.9%에 달하였음. 정상적인 경우 중국의 M2 증가율은 13% 내외인 것인 것으로 2009년의 통화 공급은 정상적인 수준의 배 이상에 달하였음. 2010년에도 여전히 19% 증가하여 13%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2011년에도 통화증가 목표를 16%로 확정하여 중국의 통화유동성은 상당히 충족함. 현재 중국은 통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통화가 실물경제와 제조업이 아닌 투기활동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

기존 중국의 통화량과 물가상승세로 중국은 더 이상 대규모의 통화완화 정책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임. 통화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인플레이션을 온화한 상태로 통제하여 점차 하락할 수 있지만, 만약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경우 10% 이상의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음. 이는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에도 불리함.

지방정부의 채무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중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어떻게 하면 대출을 더욱 잘 상환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정책을 제정 중에 있음. 전반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급속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 토지수입이나 재정수입으로 부실채무를 보완하기에 충분함. 하지만 일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5년이나 10년 등 긴 시간을 거쳐 상환하게 되면 이런 지방 채무는 큰 문제가 아님.

물론 상환할 능력이 안 돼 부실채무를 조성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정부주도형의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야 함. 2012년은 급속 경제성장이 아닌 경제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는데 구조조정은 투자시스템 개혁, 투자구조 조정 등 내용도 포함됨. 과거 중국은 정부주도형 투자만 지나치게 강조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투자는 투자수익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주도형에서 점차 기업(국유기업, 민간기업, 외자기업)을 위주로 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투자구조 개혁을 가속화시켜야 함.

질문 4.

"12.5"규획을 보면, 중국은 더 이상 급속한 경제성장률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사회건설과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완비와 주민소득 수준 향상, 사회보장의 구축과 완비 등을 더욱 중시할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증가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음. 현재 많은 학자는 중국은 이미 중등소득 국가에 들어섰고 중진국에 들어선 후 많은 국가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하였는데 중국의 중진국함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 4.

중국경제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를 서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음. 즉 노동비용 및 기타 생산비용의 상승과 기술수준, 관리수준의 향상속도 사이의 관계임. 만약 기술수준이나 관리수준의 향상속도가 노동비용이나 기타 생산비용의 상승속도(이는 중국정부에서 통제하지 못함)보다 느릴 경우 중국은 중진국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이와 관련해 한국은 중국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음. 한국도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겪었지만 기술과 관리수준의 빠른 향상으로 인해 중진국 함정을 잘 극복하였고 여전히 비교적 강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중국은 현재 기술혁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관련 분야의 지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11.5"규획 때 기업의 R&D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로 확정하였지만 2010년 말까지 그 비중은 1.76%였음. 만약 중국이 기술혁신의 계속해서 완만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은 중진국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중국은 "12.5"규획에서 기술혁신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 2015년이 되면 GDP에서의 R&D 비중을 2.2%라는 목표를 제출하였음. 즉 "11.5"규획의 임무를 완성하지 못해서 기술향상에 대한 노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고 그 비중을 확대시켰음. 최근 중국은 항공우주 등 중대 프로젝트와 과학기술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는데 이런 항공우주 등 관련 기술을 민간기술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향후 기술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11.5"규획 시 기업이 R&D에 대해 많이 투입하지 않았던 원인을 보면, 그 당시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기에 중앙국유기업을 비롯한 대다수 기업이 기술혁신 대신 부동산에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중국은 향후 5년 간 부동산가격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업이 더욱 많은

자금을 R&D에 투입하도록 유도할 것임.